

에이치시티 (072990)

꼭 필요한 기업

에이치시티는 2000년 5월 현대전자(現 SK하이닉스)의 품질보증부문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시작, 이후 2007년 3월 에이치시티로 상호 변경, 2016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주요사업은 시험인증사업과 교정사업이다. 동사의 사업 구조상 분기별 실적변동성이 크지 않으며, 과거 대부분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 매출액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 다수의 성장동력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주요사업1. 시험인증사업

시험인증사업은 특정 경제활동이 법률 또는 시장 자율로 정한 특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입증해주는 컨설팅 산업이다.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인식 증대, 기술발전과 복잡성, 아웃소싱 확대 및 전문화 등의 요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정보통신기기시험 인증 사업은 연내 5G 주파수 추가 공급, 27년 이후 6G 통신에 대한 가시화 등의 이슈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 전장화 확대에 따른 고전압 제품 비중 증가,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배터리 산업내 시험인증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주요사업2. 교정사업

교정사업은 측정기기 및 장비의 정확도를 국가 기준에 맞게 검증 및 보정하는 산업이다. 성장 요인으로는 ①첨단 제조산업내 정밀도 요구사항 향상, ②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제품 요구사항 증가, ③정확한 측정과 데이터가 요구되는 R&D 투자 확대 등이 있다. 최근 교정사업 실적성장은 방산 교정사업 수주에 기인한다. 23.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76.8억원), 23.10월 국군재정관리단(82.5억원)으로부터 수주했다. 국내 방산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자동화 교정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실적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NOT RATED (I)

목표주가 -원 (I)

직전 목표주가 0원

현재주가 (10/13) 12,48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919억원
총발행주식수	7,365,316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16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139,879주
52주 고/저	12,760원 / 7,694원
외인지분율	9.29%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이수찬 외 3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6.3	40.2	11.1
상대	4.6	30.4	(0.4)
절대 (달러환산)	3.5	35.3	5.2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633	671	741	944
영업이익	111	65	80	112
지배순이익	104	58	74	70
PER	10.5	13.9	7.8	10.0
PBR	1.6	1.1	0.7	0.8
EV/EBITDA	6.5	6.4	4.5	4.3
ROE	16.4	8.1	9.6	8.1

자료: 유안타증권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및 중요 공시는 Appendix 참조

회사개요

에이치시티는 2000년 5월 현대전자(現 SK하이닉스)의 품질보증부문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시작, 이후 2007년 3월 에이치시티로 상호 변경, 2016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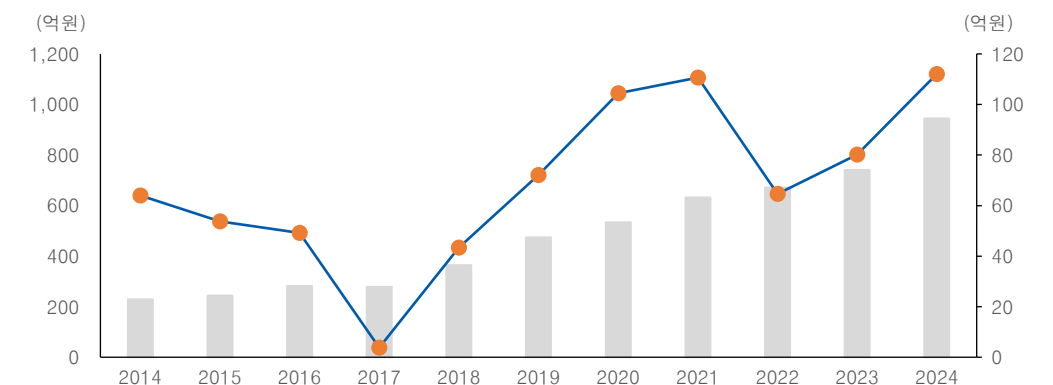
주요사업은 시험인증사업과 교정사업이다. 시험인증사업은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인증을 통해 국가마다 규정하는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해주는 엔지니어링 컨설팅 산업의 한 분야이다. 교정사업은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밀 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한다. CRO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다수의 최초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전자파흡수율 시험기관 인가 취득(2002년 3월), WCDMA 인증(2003년 10월), ISO/IEC 17025:2017 국제표준 전환 KOLSA 공인시험기관 인정(2019.7월), 일본 인증기관(J-MIC, JATE) 자격 획득(2025.03월) 등을 취득했다. 3.5Ghz Fixed Wimax Repeater CE 인증(2008.8월), LTE Data Momem Card FCC 인증(2010.11월)은 세계 최초 취득했다.

[그림1]을 통해 매출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지난 10년간(2014~2024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15.2%이다. 동일기간 동안 연평균 영업이익은 5.8%이다. 사업 특성상 새로운 장비 도입 및 지속적인 R&D 투자의 영향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낮다고 판단한다.

1H25 매출액은 548.6억원으로 전년대비 +25.0%, 영업이익은 64.1억원으로 전년대비 +14.1%로 지난 10년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동사의 사업 구조상 분기별 실적변동성이 크지 않으며, 지난 5년(2020~2024년)내 2022년을 제외(상반기 50.3% VS. 하반기 49.7%)하면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 매출액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반기와 하반기가 유사한 매출을 보이며, 지난 5년간의 평균 영업이익률(13.9%)을 적용한다면 매출액 1,097억원, 영업이익 152.2억원으로 기대된다. 향후 다수의 성장동력 및 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현재 주가(시가총액: 919억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림 1] 매출액 & 영업이익 연도별 추이



자료: HC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사업1. 시험인증사업

1)정의 & 역사

시험인증사업의 정의는 특정 경제활동이 법률 또는 시장 자율로 정한 특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주는 컨설팅 산업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규격, 규정 및 표준 등에 따라 인증 요구 조건에 만족하는지 시험-분석-평가-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시험인증산업 범위에는 시험, 검사, 인증 서비스 제공과 관련 시험성적서나 검사서, 인증서 등의 발급 외에 시험인증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활동 인정까지 포함한다. 인정은 정부가 시험인증업체의 시험인증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활동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에 KOLAS(한국인정기구), KAB(한국인정지원센터) 인정기구가 존재한다.

[표 1] 시험인증산업 구분

구분	대상	내용	대상	유효기간
시험	소재, 부품, 제품 등	절차에 따라 대상의 한 개 이상 특성을 결정	시험성적서	단기(시험대상만 적용)
교정	시험장비, 측정장비	표준에 따른 측정소급성과 장비교정과 관련한 측정불확도에 관한 정보 제공	교정성적서	단기(시험장비, 측정장비만 적용)
검사	제품 배치 프로세스 장소 등	제품디자인, 제품, 프로세스, 설치 점검과 이러한 것들의 특정 또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검사보고서	단기(검사만 적용)
인증	제품 프로세스 등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자격관련 제3자 증명	인증서	장기(1년 이상)

자료: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시험인증은 안전·품질·보건·환경 등의 규제산업으로 수출주도의 경제를 뒷받침하며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1960년대 수출검사법(1962.12월 시행)에 따른 수출검사소가 지금의 시험인증기관으로 발전했다. 국제공인 시험인증 제도를 1990년대 도입, 제조업의 인프라 차원에서 장비 확충 등 산업 기반은 2000년대에 조성되었다.

[표 2] 한국 시험인증 발전 단계

구분	근대화	공업화 초기	수출주도 경제성장	국제화, 개방화, 다원화
시기	20세기	1950~60년대	1970~80년대	90년대 이후
역할	분석시험, 화폐주조	공업기술연구, 시험분석	수출검사, 품질인증	국제규범화 기술규제
정부	분석시험소 (전환국)	공업연구소 (상공부)	공업시험원 (공진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등
민간	-	수출검사소	공공시험인증기관	민간시험인증기관

자료: 산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시장규모 및 성장배경

시험인증산업은 점진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2025년 2,395억\$에서 2030년 3,828억달러로 연평균 +3.4%, Mordor Intellingence는 연평균 4.7% 성장(2025년 2,634억\$→2030년 3,311억\$)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동일 기간동안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배터리/ESS 등의 신산업에서는 전체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항이다.

시험인증산업 성장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①안전 및 품질에 대한 인식 증대. 소비자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요구가 상향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 개발 단계부터 엄격한 시험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기술발전과 복잡성. 신기술의 등장과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복잡성 증가는 새로운 시험인증 분야를 창출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안정성 및 성능 검증 기준을 필요로 한다. 5G 통신 장비의 전파 적합성 시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③아웃소싱 확대 및 전문화.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적으로 수행하던 시험인증 업무를 전문 시험인증 기관에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시험인증 기관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 기업들에게는 비용 효율화를, 전문성을 보유한 시험인증 기업들에게는 수요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향된다.

④국제 및 법규 강화. 각국 정부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공공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규제와 법규를 제정하고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로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특정 시험인증을 의무화하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유럽의 CE, 미국의 UL, 한국의 KC는 제품이 해당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험인증에 해당된다.

⑤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 제품의 품질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 각국마다 다른 기술 표준과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험인증은 필수적인 관문이 되었다.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에 맞는 시험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⑥환경 및 지속 가능성 요구 증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제품의 환경 영향에 대한 시험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 유해물질 저감, 재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인증은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H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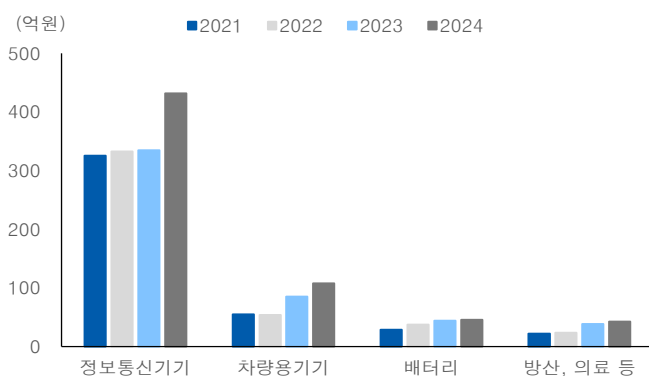
동사의 시험인증사업 관련 매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4년 627.0억원으로 연평균 13.3%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 성장률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는 시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정보통신기기향 시험인증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험인증사업부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2/3 이상(2021년 68.1%→2022년 66.6%→2023년 67.8%→2024년 66.4%)을 차지하며, 시험인증사업부내에서 정보통신기기의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68.8%으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3월 전자파흡수율 시험기관 인가 취득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 통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IT Device 기기 시장 성장과 연동된다고 할 수 있다.

2026년 이후에도 정보통신기기향 시험인증 사업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파수가 새롭게 추가되면 통신이 탑재된 기기에서는 추가적인 시험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①2024년 9월 과기부는 올해 하반기에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 현재 이용 중인 일부 3·4·5G 주파수에 대한 이용 종료 여부를 결정한 뒤, 추가로 확보되는 주파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②2027년에는 6G 주파수 확보 여부가 세계 전파통신회의(WRC)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28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이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6G 통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28~2029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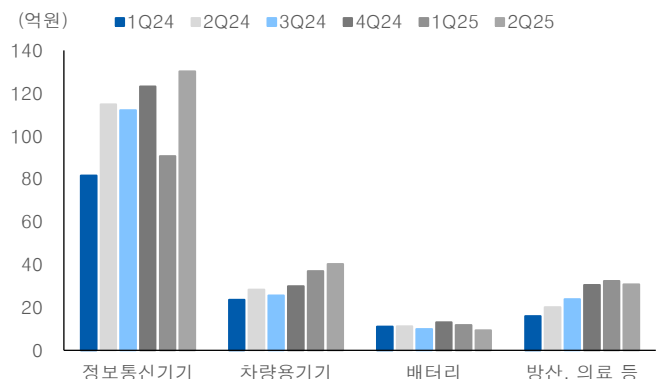
둘째, 비중은 정보통신기기가 높지만 성장률은 다른 산업향이 높다. 차량용기기의 경우 2021~2024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25.2%이며, 배터리는 17.1%, 방산/의료 등은 24.6%이다. 차량용기기와 배터리는 전기차 & 스마트카로의 전환 트렌드로 인해 발생하는 성장으로 추정되며, 신규 차량 중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비중 확대, 차량내 ADAS 기본 장착 기능 증가 등의 이유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항법장치가 적용된 제품 수와 수출국가 수의 증가 영향으로 방산향 시험인증 역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연도별 시험인증 매출액 추이



자료: HC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전방산업별 시험인증 사업부 분기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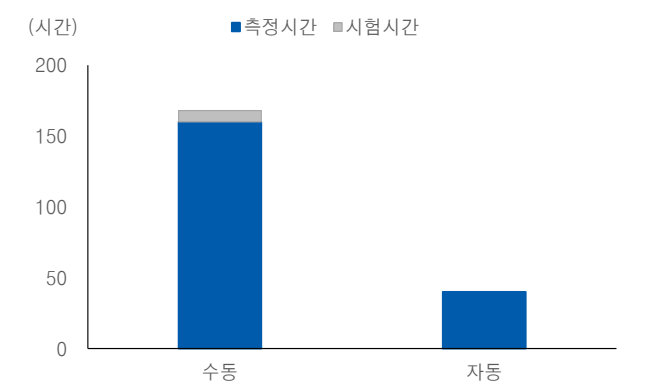


자료: HC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시험인증산업은 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쟁사로는 정부 산하기관인 KTL과 디티엔씨, 원텍 등이 있다. 글로벌 경쟁 업체로는 대표적인 다국적 시험인증 기업인 SGS Korea과 TUV SUD, DEKRA 등이 있다. 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 ①무선통신. 무선기기 인증시험에 대한 많은 경험과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인증 시험에서는 국내 최고의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다의 SAR(전자파흡수율) 시험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험을 병렬로 진행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시험기간이 짧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과점적 위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②유선통신. 국내 최초로 국가(국립전파연구원)로부터 유선 전분야에 대한 시험 인가를 취득했다. 외부 신호의 위해로부터 국가 또는 사업자 통신망을 보호하고자 통신망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되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나, 직접 접속되지 않더라도 통신망 운영자나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통신세대 변경시 매출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③배터리. 국내 최초 민간 배터리 시험기관이다. 2021년 중대형 배터리 시험확대를 위해 방폭 건물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 해양수산부 형식 승인 시험기관지정으로 국내외 다양한 배터리 인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 성능 시험 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2026년 2월 이후 전기차 출고는 제조사의 자가 인증 방식이 아닌 국토부가 지정한 기관의 안전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만 가능해진다. 또한, 당사는 국내 최초로 EV와 ESS용 배터리 인증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국내 배터리3사의 ESS 시장 진입 및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
- ④고전압. 차량내 다양한 디스플레이 및 기기들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 OEM사의 특성과 국내외 친환경차량(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증가로 인해 고전압 전장품에 대한 시험인증이 확대되고 있다. 고전압 컨버터/인버터, 고전압 전력분배장치 등 다양한 제품의 시험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⑤자동화. 측정 장비를 PC로 제어하며 자동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PC와 연결이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가 설치된 계측장비와 적절하게 디자인된 측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4] 자동 VS. 수동 시험시간 비교



자료: HC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3] 자동화 능력 비교

HCT	비교	경쟁사
0	외주공급실적	-
0	교정지원	-
0	장비제어	0
0	EUT제어	-
0	시험무인화	-

자료: HC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사업2. 교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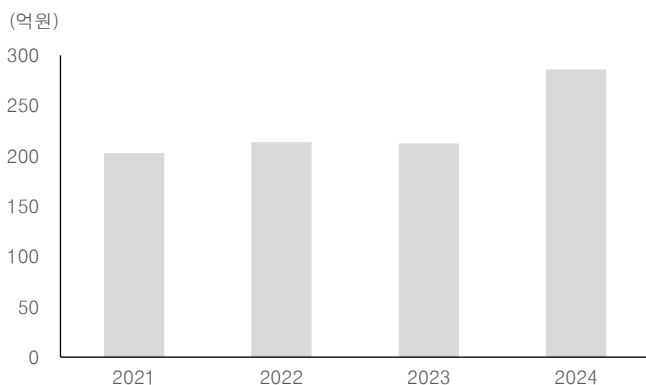
교정(Calibration)사업은 국가 품질 인프라(NQI: 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의 한 축으로 측정기기 및 장비의 정확도를 국가 기준에 맞게 검증 및 보정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성장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①첨단 제조산업내 정밀도의 요구사항이 상향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항공, 방산 등의 산업에서는 나노 단위의 정밀 공정이 확산되고 있다. 0.01%의 공정오차 발생으로도 수율이 하락하거나 품질 불량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②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즉, 국가 측정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교정사업이 필요하다. ③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R&D 과정에서는 정확한 측정과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사용되는 장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정 서비스가 필요하다.

Grand View Research, Marketsandmarkets 등에 따르면 글로벌 교정사업은 2025년 70억달러에서 2030년 95억달러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공정, 정밀공정이 요구되는 반도체, 전기전자, 바이오 등의 주요 성장동력 산업이다. 국내 교정사업 시장규모는 2024년 기준 약 5,000억원으로 수준이며, 2030년에는 8,000~8,5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 성장률과 유사한 성장률이 전망된다. 특징적인 점은 국내의 경우 디지털 국가표준체계 및 新전방산업(스마트팩토리 등)의 규제 완화로 인해 동사가 영위하는 민간 교정시장의 점유율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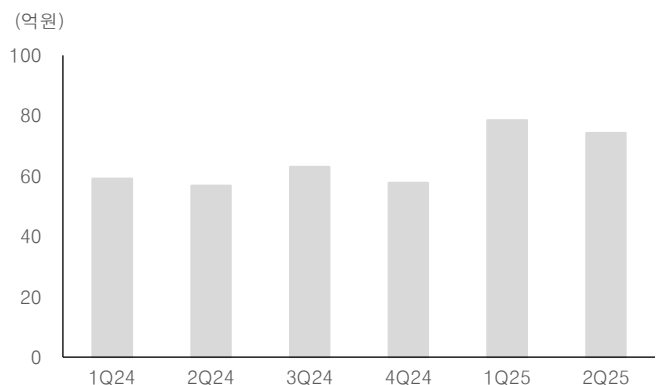
동사의 교정사업 매출액은 2021년 202.1억원에서 2024년 285.2억원으로 연평균 12.2%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H25의 경우 전년반기 대비 27.5% 성장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실적개선 요인은 방산 교정사업 수주에 기인한다. 2023년 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화생방 정찰차 II 창정비요소 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계약금액은 76.8억원이었다. 이어 국군재정관리단과 특화 교정자동화시스템 제조사업을 2023년 10월에 수주했다. 계약금액은 82.5억원이다. 국내 방산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자동화 교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실적성장이 기대된다.

[그림 5] 연도별 교정사업 매출액 추이



자료: HC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분기별 교정사업 매출액 추이



자료: HC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에이치시티 (07299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534	633	671	741	944
매출원가	294	358	411	453	574
매출총이익	240	274	261	288	370
판매비	136	164	196	208	258
영업이익	104	111	65	80	112
EBITDA	182	206	172	199	252
영업외손익	-3	-2	-14	-10	-40
외환관련손익	0	1	-5	-2	-2
이자손익	-3	-3	-9	-11	-16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기타	0	1	-1	2	-2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02	109	50	70	72
법인세비용	-2	4	-5	8	19
계속사업순손익	104	105	55	62	53
중단사업순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04	105	55	62	53
지배지분순이익	103	104	58	74	70
포괄손익	96	99	61	66	90
지배지분포괄이익	96	99	64	78	106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영업활동 현금흐름	163	143	163	140	215
당기순이익	104	105	55	62	53
감가상각비	73	91	103	113	134
외환손익	0	0	5	1	2
종속,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24	-55	5	-47	-35
기타현금흐름	11	2	-5	11	60
투자활동 현금흐름	-179	-315	-201	-122	-174
투자자산	0	0	-2	0	0
유형자산 증가 (CAPEX)	-131	-334	-134	-165	-171
유형자산 감소	0	3	1	1	0
기타현금흐름	-48	16	-65	42	-3
재무활동 현금흐름	-17	227	-21	-5	0
단기차입금	0	20	50	10	16
사채 및 장기차입금	4	205	-32	-7	4
자본	0	0	0	0	0
현금배당	-2	-3	-5	0	0
기타현금흐름	-19	6	-34	-8	-20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0	-2	0	1	4
현금의 증감	-33	53	-58	14	46
기초 현금	126	93	146	88	101
기말 현금	93	146	88	101	147
NOPLAT	106	111	71	80	112
FCF	29	-183	49	-14	46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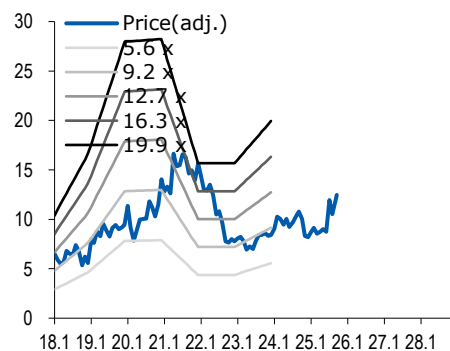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유동자산	279	340	356	370	482
현금및현금성자산	93	146	88	101	14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5	153	154	189	227
재고자산	0	1	1	1	2
비유동자산	567	861	970	1,041	1,190
유형자산	518	794	853	925	1,094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자산	0	0	0	1	1
기타투자자산	4	6	8	8	7
자산총계	846	1,202	1,326	1,411	1,672
유동부채	231	265	334	399	39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8	52	60	61	72
단기차입금	123	143	193	203	219
유동성장기부채	24	31	27	79	13
비유동부채	33	244	229	174	336
장기차입금	24	226	210	155	243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263	509	564	573	728
지배지분	582	692	731	808	928
자본금	35	35	35	36	36
자본잉여금	175	182	182	182	164
이익잉여금	389	479	532	605	683
비지배지분	1	1	31	29	16
자본총계	583	693	762	837	944
순차입금	20	236	266	302	370
총차입금	174	413	444	449	561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EPS	1,403	1,417	787	1,000	952
BPS	8,073	9,482	10,209	11,296	12,602
EBITDAPS	2,467	2,794	2,339	2,697	3,416
SPS	7,247	8,590	9,112	10,062	12,818
DPS	47	66	0	0	89
PER	7.5	10.5	13.9	7.8	10.0
PBR	1.3	1.6	1.1	0.7	0.8
EV/EBITDA	4.4	6.5	6.4	4.5	4.3
PSR	1.5	1.7	1.2	0.8	0.7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증가율 (%)	12.6	18.5	6.1	10.4	27.4
영업이익 증가율 (%)	44.8	5.9	-41.6	24.1	39.9
지배순이익 증가율 (%)	68.3	1.0	-44.5	27.2	-4.9
매출총이익률 (%)	45.0	43.4	38.8	38.9	39.2
영업이익률 (%)	19.6	17.5	9.6	10.8	11.9
지배순이익률 (%)	19.4	16.5	8.6	9.9	7.4
EBITDA 마진 (%)	34.0	32.5	25.7	26.8	26.7
ROIC	18.9	14.8	7.5	7.7	9.5
ROA	12.9	10.2	4.6	5.4	4.5
ROE	19.2	16.4	8.1	9.6	8.1
부채비율 (%)	45.2	73.5	73.9	68.5	77.1
순차입금/자기자본 (%)	3.5	34.1	34.8	36.0	39.2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27.0	27.4	5.7	5.2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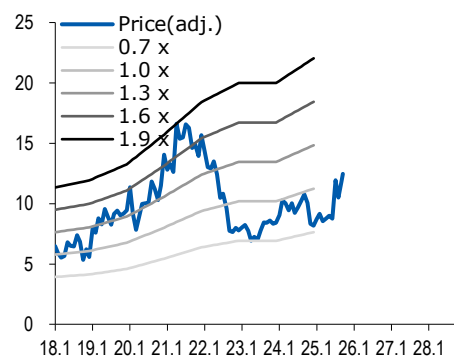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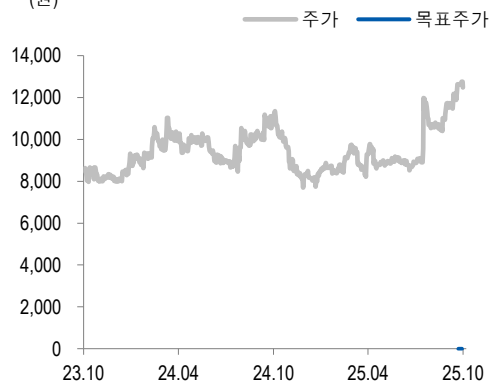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 원)



에이치시티 (07299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원)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10-14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2.9
Hold(중립)	7.1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10-13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